

지역 소식통

고창, 신주백 역사학자 초청 강연

고창군이 20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신주백 교수(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를 초청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고창의 위상'을 주제로 군민 포럼을 열었다. 신주백 교수는 "고창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일제강점기 동안 감압적인 통치에 맞서며 헌신했던 고창 의병들의 활약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뿌리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고창 성내 출신 근촌 백관수 선생을 비롯해 항일 독립 의병운동에 앞장선 정시해, 김공삼, 박도경 의병장, 유립들의 외교 독립투쟁이었던 피리장사에 앞장선 고석진, 고예진, 고순진, 고제만 선생의 업적을 상세히 소개했다.

신 교수는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지식인들의 교육 및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루어진 성과들이 지역의 많은 기념관과 유적지로 남아 후손들에게 그 정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로컬푸드직매장, 지진 재난극복 상생 특판행사

부안군은 6·12 지진피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부안로컬푸드직매장(임시 직매장)에서 지진 재난극복 상생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매장은 지난 2021년 6월 개장 이래 농산물 판로확보가 어려운 중·소농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를 통한 소득 기반을 마련해 주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부안군 안전 먹거리 지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부안형 푸드플랜의 핵심인 직매장을 통해 이번 지진 발생으로 침체 우려가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자 이번 특판행사를 기획했다. 주요 할인 품목은 6월 현재 지역 주요 과수류인 수박·토마토·복숭아 등 농산물 10여종으로 10~20% 가량 할인 판매할 계획이며 주말인 오는 21~22일에는 삼겹살 할인 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반가공 산업 육성 나선다

정읍시, 특산자원 활용 분말·페이스트 등 반가공 산업 육성... 7월 12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정읍의 특산자원을 활용한 반가공 산업 육성에 나선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농촌진흥청 주관 공모사업인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귀리, 밀, 콩, 쌀을 원료로 한 융복합상품 발굴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올해는 특산자원을 활용한 반가공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산자원 반가공 사업장 생산기반 조성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정읍의 특산자원인 귀리, 밀, 콩, 쌀을 분말(가루), 압착, 볶음, 페이스트 등의 반가공 제품을 생산·유통·판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지원 사항은 가공시설, HACCP 인증, 브랜드 및 포장 개발, 홍보·마케팅 등이다. 총 2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 25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정읍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식품제조업체 등으로, 특산자원(귀리, 밀, 콩, 쌀) 중 1개 이상을 원료로 반가공 제품 생산과 유통판매가 가능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7월 12일까지 시청 또는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해 신청서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지원팀(539-6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대표 농특산물을 반가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반가공 사업 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특산물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농산물 반가공에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수박으로 만든 디저트와인 '슈박클링' 첫 출시

제21회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 기념 수박와인 2100병 한정판

고창수박빵으로 알려진 수박 디저트업체 '워터멜론하우스(대표 임득선)'가 고창수박으로 만든 디저트와인 '슈박클링(수박 + 스파클링 합성어, 750ml, ALC 6%)'을 올해 첫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1회를 맞이하는 '고창북분자와 수박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2100병 한정수량으로 첫 선을 보인다.

'슈박클링'은 2023년 출하한 고창수박의 붉은 속살만을 10개월동안 발효하여 성인남녀 누구나 좋아하는 로제 스위트스파클링와인을 만들었다.

특히, 수박와인의 아름다운 붉은색과 기본종은 탄닌감, 상큼한 버블감을 고창 북분자를 활용했다.

업체는 고창수박을 활용한 스위트와인의 대명사인 이태리 '모스카토 다스티'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스위트



와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와인전문가 최정욱와인연구소장과 해미유성딸기와의너리 선권수 대표에게 자문을 받고 2년간의 연구를 통해 뛰어난 퀄리티의 디저트와인을 출시하게 됐다. 슈박클링은 케이크, 과일, 치즈 등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좋고, 수박처럼 시원하게 드셔야 수박의 스위트함과 버블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소중한 가족과 연인,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할 수 있는 고창 수박와인은 고창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표상품으로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워터멜론하우스(주) 변보라 실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한 고창의 농산물을 활용해 MZ세대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캐릭터 제품인 고창수박빵, 고창수박쥬스에 이어 수박와인까지 출시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고창수박'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향후 지역을 대표하는 '수박테마파크'까지 만들어 고창수박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고창수박와인은 7월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창군 농특산물관매장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체육트레이닝센터 수영장 24일부터 임시개장

정읍시가 체육트레이닝센터 내 수영장을 오는 24일부터 임시개장한다.

지난 18일 준공된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는 기존 공설운동장 중·개축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062.51㎡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2.5×25m 규격 8레인을 갖춘 수영장 △체력측정, 운동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정읍체력인증센터

△최신 런닝머신, 상체근력강화 운동기구 등을 포함한 헬스장 △각종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교 작은도서관(열람실, 다목적실) 등이 설치됐다.

수영장 임시개장 기간은 24~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2시간씩 3회로 나눠 각 100명 씩 무료입장할 수 있다. 시는 임시개장 기간 중 시설 점검과 주민 의견을 청취해 시설 관리

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정식개장은 7월 1일부터로, 평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은 휴관한다. 이용료는 1일 3500원, 월 6만원이다.

시는 시민 수요를 조사해 수영 강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세계지질공원 2차 지오포럼 개최

부안군, 지질공원의 발전방향·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위해

부안군은 20일 지역 주민·청년 단체(골로코프로젝트, 시고르청춘, 부아노로, 소금단, 부안청년건강모임)와 기관단체(변산반도국립공원생태탐방원, 문화재단)에서 참석하여 지질공원의 발전방향과 지역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지오포럼을 개최하였다.

2차 지오포럼에서는 부안의 대표 지질명소인 채석강과 적벽강을 이용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지오파티너 채석강수상레저조합과 보트해설 체험을 운영하였다. 부안 청년들의 감성과 아이디어를 활용해 지질명소 관광 액티비티 체험을 개발 할 계획이다. 체험 프로그램 이후, 아이디어 토크로 참여한 지질공원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과 관광 콘텐츠로 추후 세계지질공원을 알차게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에는 1차 지오포럼을 개최하였다. 지역주민과 지질공원이 함께 지질공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대화의 장을 열었다. 1차 포럼에서는 지

질공원 이해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관광연계 발굴 사업의 우수 사례에 대한 강의(소도시트래블, 이영동)도 청취하였다. 1차 지오포럼에서는 지질공원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또한, 지질공원이 어떻게 더욱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으며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부안군은 지질공원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2023년 5월,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받았다. 이로써 국제 브랜드에 걸맞게 지역주민의 지질공원의 심도있는 이해가 중요해졌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지질유산의 국제적 가치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관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지질공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보전에 앞장서며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지질공원의 목적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는 2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6개 영역 기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읍시, 생명존중안심마을 협약식 개최

정읍시는 2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생명존중안심마을 6개 영역(보건, 교육, 복지, 지역사회, 유통판매, 공공서비스)기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읍시를 비롯해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86개 기관의 기관장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안내와 업무협약,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서, 농약안전보관함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살률 감소를 도모하는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이다. 2024년 읍면동 7개 지역을 시작으로 정읍 전 지역 유관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선서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화수 시장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을 통해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생명존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